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35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9년 6월 10일
부산시 사하구 괴장로263 B1층(괴정동)
TEL:051-466-8761, FAX:0504-274-6510
ds5ean@naver.com
H · P : 010-6504-6510

계간35호 발행 · 편집: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 ㈜동아P&P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ㅇ 틀리면 x

독도소식지 35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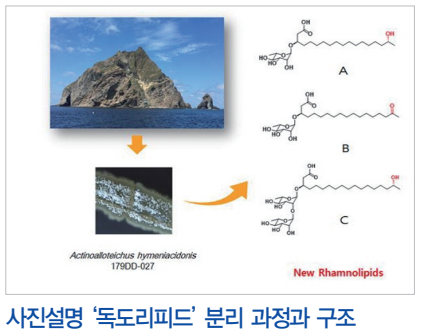
일본, '독도는 일본 땅' 초등생 교과서부터 왜곡 교육

입력 : 2019.03.26 14:43:19 수정 : 2019.03.26 14:43:31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조된 새 교과서를 놓고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教)출판, 교이쿠(教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가 사용되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영토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한층 커졌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행사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미래 세대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 해양미생물서 항암효과 신물질 발견

입력 : 2019.05.20 11:00:17 수정 : 2019.05.20 11:22:50



사진설명 '독도리피드' 분리 과정과 구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주변 해역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신물질 3종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희재 박사 연구팀은 2006년부터 진행된 `독도 지속 가능 이용 연구사업`의 하나로 이번 연구를 했다. `독도리피드`라 이름 붙인 이번 신물질은 `람노리피드` 계열의 생물계면활성제다. 이 물질은 대장암, 위암,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6종의 암에 대해 항암활성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원은 "생물계면활성제는 석유의 부산물에서 얻는 일반적인 계면활성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이라며 "화장품, 식품, 가정용품,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원은 `독도리피드` 활용 가능성과 상용화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 `마린 드럭스`에 실렸다.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 출원도 마쳤다. ts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후원금 주신 분

곽용수	DS5IWY 부산시사하구승학로	30,000원
김일부	HL5BBG수영구남천동삼익비취	50,000원
황순철	경남양산시시명로87	10,000원
이정로	부산시서구룻대케슬105동	50,000원
정향숙	부산시북구모분재로7번길	50,000원
배진희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	10,000원
김미선	부산시해운대구해운대로	10,000원
윤소정	부산시동래구중앙대로1523.	10,000원
이채언	부산시진구범천동1057	10,000원

알립니다

(사)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산지부 도 3월26일 일본교과서 독도 왜곡 에 대한 성명서에 참여했는데 독도 이상훈 실수로 참여단체에 누락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성명서는 낭독 후 일본 대사관 영사관 2곳에 보냈습니다. 발표 영상은 홈피에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3월26일 일본 교과서 독도왜곡에 대한 성명서

2019년3월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일본 초등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하고 검정, 승인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일본의 도발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독도단체 유관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일본은 과거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침략했듯이, 또다시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신대륙주의 침략도발을 하고 있다.

한민족은 지금까지 일본처럼 주변 국가를 침략하지 않고, 독도의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三 · 一 독립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 애족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한, 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일본과 평화로운 이웃사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아베신조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성 외무성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검정 통과시킨 일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일본의 잘못된 교과서 내용은 전부 즉각 삭제하고 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자라난 학생들이 커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일본의 어른들과 교사들을 결코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사회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일본은 대한민국 독도를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진실처럼 왜곡해서 가르친 댓가로 국가가 병들고 사회가 썩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가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에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거짓홍보를 중지하고 교과서 독도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국가가 사는 길이고 일본 기성세대가 후손들로부터 예우 받는 길이다.

과거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대가로 수많은 일본사람들이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도 진실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역사왜곡과 거짓독도교육으로 독도침략과 도발을 일삼는다면 일본은 또다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한민국 독도단체 대표들과 유관단체대표들은 일본이 더 이상 대한민국 독도 침략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동북아의 이웃사촌국가로서 힘을 모아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구호제창)

一. 일본국 아베신조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성, 외무성에서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서 교과서를 통한 독도 왜곡, 불법침입을 즉각 중지하라!

一. 일본국 문부과학성은 독도왜곡 교과서는 검인정 허가를 취소하고 수거하여 폐기하라!

一. 일본은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거짓홍보를 중단하라!

2019년 4월 17일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이 상 훈

(참여 24개 단체 가나다 순)

(사)나라사랑단체장연합회. (사)대한민국상훈회. (사)독도문화협회. 고종황제독도칙령기념사업회. 국기사랑회. 대마도찾기운동본부.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독도사랑문학회. 독도사수대.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연합총본부. 독도의병대. 독도정책연구회. 독도지킴이그린연합.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독도향우회. 민족역사족보학회. 영토문화관독도. 울릉군향우회. 코리아독도수호연합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부산본부. 한국아리랑문학회. 한반도통일지도총연합부산본부. 햄독도사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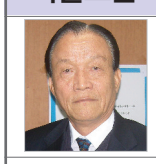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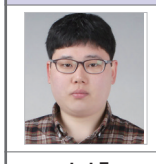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참여자께 인사하는 이진우회장님
⇦규탄사를 하시는 김대수상임대표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들 관광버스로 독도행사(안동)에 참여후 기념사진 한컷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는 5월3일 10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5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호국통일안보결의및 고령 유공자 위로행사" 를 개최하였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홍보대사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김영구교수	황성일 회장	곽현옥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 여사	문병준 교수	임기병 교수	가수 서희	독도 이상훈	김영희여사	윤예준의장
사이버국장	홍보위원	서울지회장	충북지회장	경기지회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전기훈	장태현사장	박관영	한명석소장	한채훈	백미경	김석순회장	김필이여사	박대희이사	이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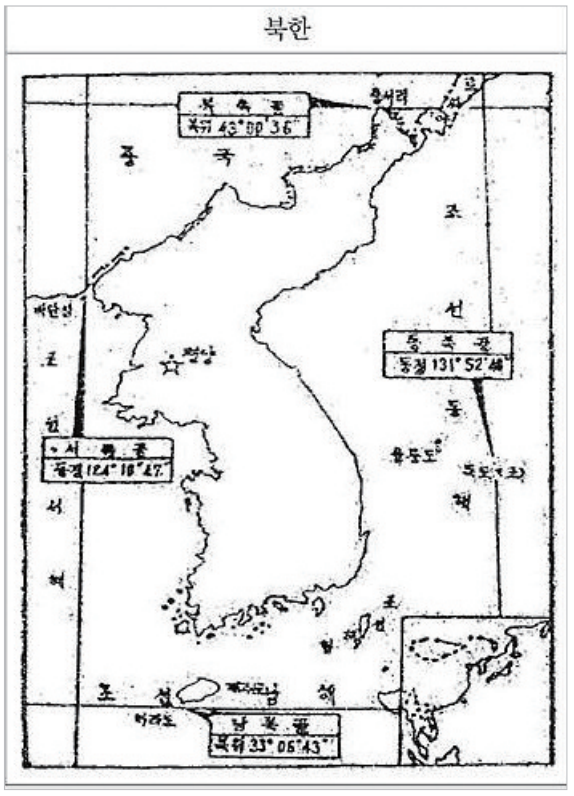
북한은 독도 어떻게 가르치나…"우리의 신성한 령토"

송고시간 | 2016/02/22 06:40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분석…"남북 공동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정한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4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독도 영유권 도발을 멈추기는커녕 점점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토 교육을 분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한반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도 서도설경 〈〈연합뉴스 자료사진.독도울릉경비대 제공〉〉

22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이상균 연구위원과 최희 인하대 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최근 내놓은 논문 '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에서 북한의 독도 인식을 분석했다. 북한 고등중학교(중 · 고등학교)의 2014년 개편 이전(개편 이후는 현재 미공개) 교육과정을 보면 2학년 '조선 동해'와 4학년 '동남지방' 단원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서 북한은 독도가 조선이 대대로 영유해온 한반도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독도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다. 그럼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령도'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4학년 경제 · 지리 교과서는 "오늘날 독도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빼앗아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놈들의 강도적 야망은 실현될 수 없으며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영토 인식' 〈〈논문에서 발췌〉〉북한 교육도서출판사 '지리 2'(박홍준. 2005)

북한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나 직장과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 영토교육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신문'. 당과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치신문을 통한 교육이다. 노동신문은 한일수교(1965년 6월 22일) 직전인 1965년 2월 23일 독도 관련 기사를 처음 게재했으며 1960년대 19건, 1970~1990년 11건, 2000년대 130건, 2010~2013년 17건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독도문제'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령토적 야망'(1965년 2월 23 일),'독도는 력사적으로 우리나라 령토이다'(1983년 3월 4일),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영토' '(2002년8월 20일)등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독도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담은 우표를 발행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영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영토교육은 북한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위원은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적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유일하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본의 도발에 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영토해양연구' 9호에 실렸다. eun@yna.co.kr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독도 관련 기사 〈〈논문에서 발췌〉〉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22 06:40 송고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빼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 · 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전화)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천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트럼프, 동해 대신 "Sea of Japan"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5-29 03:00수정 2019-05-29 08:18

美 표기 원칙" 일본해 고수… 한국 정부 "동해병기 입장 불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내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LHD-1)에 들러 미군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언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은 황해,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순찰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킨다"고 말하며 '일본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정부 지도와 공문서 등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바꿔 달라는 한국 교민들의 청원이 과거 몇 차례 있었다. 미국 측은 당시 "미 연방정부는 미국지명위원회(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BGN이 정한 공식 명칭이 일본해다. 또한 한 수역당 하나만 사용하는 단일 표기가 원칙"이라며 청원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미국대통령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렀다. 이거 동해를 병기하는 일이 미국에서도 생기는데 보통 문제인가? 국민들 분발해야 한다. 독도 이상훈

1면 성명서 발표하는 독도 이상훈 회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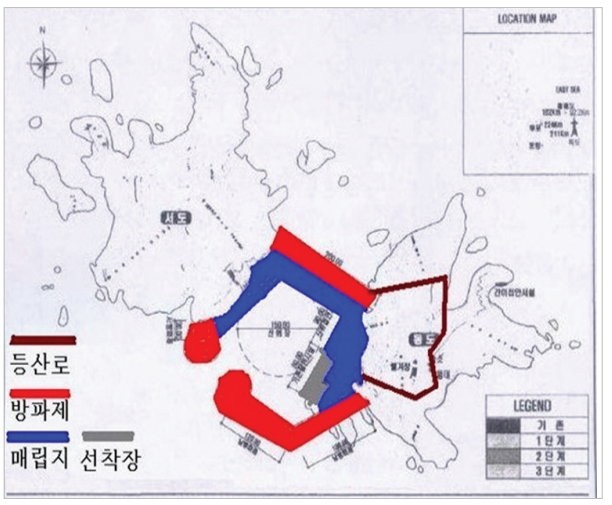
日 '독도도발' 도쿄 전시관, 7배로 확장 이전한다

더 많은 관람객 수용해 영토 왜곡 주장 강화 의도 노골화 입력 : 2019.05.07 18:02:24

사진설명일본 정부가 2018년 1월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日比谷)공원 시세이(市政)회관에 내에 개관한 '영토 · 주권 전시관'의 내부 모습.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선전물들과 함께 전시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도쿄 도심에 운영 중인 전시관을 현재 규모보다 7배로 확장해 이전하기로 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要光寛)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히비야(日比谷)공원에 설치된 '영토 · 주권 전시관'을 도쿄 도라노몬(虎ノ門)지구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전 장소는 민간 건물의 1층이며 점유 면적은 현재의 7배인 약 700㎡로 확장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지난해 1월 25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공원 내 시세이(市政)회관에 설치된 이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직접 설치한 첫 영토 문제 관련 홍보시설이다. 100㎡ 넓이의 전시관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료와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전시관 개관과 관련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본 정부가 이 전시관을 신주쿠(新宿)구 번화가인 요쓰야(四谷)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교도는 이번 전시관 이전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시를 충실히 해 관람객을 늘리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시관은 시세이회관의 내진 공사로 인해 내년 3월까지는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전시관은 현재 일요일에 휴관하지만, 이전한 뒤에는 일요일에도 개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야코시 영토문제담당상은 "교통편도 좋고 국회를 견학하는 아동들도 걸어서 갈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뒤 조기에 이전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는 덧붙였다.[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렇게 독도 개발해서 마을만들자!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님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독도소식지 35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빼앗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연락처	이 메 일				사진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 도 사 수 연 합 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